



## 제2장

# 부문별 성과

**제1절** 민선6기 역점시책

**제2절** 일자리창출과 성장동력산업 육성

**제3절**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절** 매력있는 관광·문화산업 육성

**제5절** 활기 넘치는 지역개발 촉진

**제6절**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제7절**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제8절**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도정 구현



# 제1절 민선6기 역점시책

1. 「가고 싶은 섬」 가꾸기
2. 「숲속의 전남」 만들기
3.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4. 남도문예 르네상스
5.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
6. 온정을 더하는 서민시책 추진
7. 청년발전 정책 추진





# 제1절 민선6기 역점시책

## 1. 「가고 싶은 섬」 가꾸기

### 1-1. 「가고 싶은 섬 가꾸기 10개년 계획」 수립

전남도는 ‘해양관광(Blue Tourism) 시대를 선도’하고 ‘섬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소득 증대’를 위해 2015년부터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섬 주민을 위해 선착장, 물양장, 연륙·연도교, 도로 등 생활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며, ‘섬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소득 제고’ 방안을 고민하던 중 섬 관광에 주목했다.

전남의 섬은 전반적으로 수려한 풍광(기암절벽·방풍림·해변·희귀 동식물 등), 풍부한 인문학 자원(역사·민속·전설 등), 맛있는 먹거리(농수축산물·약초 등) 등 충분히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일부 섬을 제외한 다수의 섬은 열악한 정주 여건 및 관광기반시설 때문에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관광기반시설이 주민편의시설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정주 여건 개선’과 ‘섬 관광 활성화(소득 증대)’를 꾀하고, 나아가 ‘해양관광(Blue Tourism) 시대를 선도’하고자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10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섬의 매력과 주민 역량·의지’를 평가하여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총 24개의 섬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하여 2,633억원의 예산을 투입,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민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가고 싶은 섬」에 선정한 섬별 사업기간은 5년으로 매년 8억 원씩 5년 동안 총 40억원을 지원한다. 예산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추진부서 ● 해양항만과장 한동희, 섬개발팀장 신운용, 담당자 손영곤

## 1-2. 섬 매력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

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가고 싶은 섬」 10곳을 선정하여 섬별 매력에 초점을 맞춰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가고 싶은 섬’으로 가꾸고 있다. 아울러 2018년 2곳을 새롭게 선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연도별 선정한 『가고 싶은 섬』 목록 】

연도	가고 싶은 섬
2015	낭도(여수), 연흥도(고흥), 가우도(강진), 소안도(완도), 관매도(진도), 반월박지도(신안)
2016	장도(보성), 생일도(완도)
2017	손죽도(여수), 기점소악도(신안)
2018	여서도(완도), 대마도(진도)

섬별 기본계획은 자원조사TF팀이 「가고 싶은 섬」을 방문, 섬 주민과 함께 조사한 어촌문화·경관·자연환경·식생·사회적경제 등 분야별 섬별 핵심 키워드, 즉 매력적인 자원을 바탕으로 수립했다.

이때, 도는 섬 주민이 사실상 기본계획 수립을 주도하도록 했다. 섬의 매력에 대해 섬 주민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는 생각과 본 사

업이 기본적으로 '섬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기에 무엇보다 '주민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또한, 섬 관광 활성화를 좌우하는 '섬 관광상품 운용'과 '섬 생태의 지속적·체계적 관리'의 주체가 주민이기에 주민에게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수립한 섬별 대략적인 기본계획과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

'낭만' 낭도. 낭도의 핵심 키워드는 섬길, 모래해변, 갯벌, 낙지, 콩밭, 낭도막걸리, 폐교, 사도, 공룡발자국, 봉수대가 있던 자리, 소가 쟁기 질하는 모습, 별무리 등이다. 이러한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낭도막걸리 페스티벌을 개최, 폐교를 리모델링한 게스트하우스(숙소·식당) 운영, 장사금 해변 '뜻밖의 도서관' 설립, 규포 마을 '어가 체험 공간' 조성, 섬 일주 산책로 18km 코스 개발 등을 기본 계획에 담았다.

'연분홍 치마' 연홍도. 연홍도의 핵심 키워드는 섬 속의 미술관, 골목 아트디자인, 황토길, 모래해변, 작은 섬, 섬 둘레길, 공공미술, 주민 열정, 다시마, 미역, 몽돌해변, 선박, 젊은이들, 낮은 표고 등이다. 이러한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현재 '가족·연인이 함께하는 미술 섬 여행을 위한 연홍도 국제아트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섬 전체를 조형 미술관으로 조성하고, 마을 도선(渡船)도 움직이는 미술관 콘셉트로 새로 만들 계획이다.

'걷는 섬' 가우도. 가우도의 핵심 키워드는 나무다리, 청년카페, 작은마을, 생태공원, 호수를 닮은 강진만, 출렁다리, 짙레꽃, 가우도밥상, 바지락초무침, 맑은 샘, 후박나무, 당숲, 청자 전망대, 산책로, 수국, 향기, 마을기업, 주민공동체 등이다. 이러한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현재 마을 청년들이 '가우나무' 청년카페를 부녀회에서는 마을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가우도는 2018년부터 마을기업을 통해 전국 최초의 '마을연금'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노랑무궁화' 소안도. 소안도의 핵심 키워드는 미라리 어부림, 넓은

섬길, 대봉산 둘레길, 가학산 전경, 물치기미 해변, 독립운동가, 태극기, 노랑무궁화, 전복, 다시마, 마라리분교, 몽돌해변, 야생화, 습지, 잘피 군락지 등이다. 이러한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노랑무궁화가 피는 섬마을, 파도소리가 들리는 소안도 숲길을 주제로 둘레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마을기업을 설립하여 미라리펜션, 전복밥상, 노랑무궁화 전시 및 판매 등 수익사업도 추진한다.

‘술 향기’ 관매도. 관매도의 핵심 키워드는 국내 최대 해변술 숲, 장안평 습지, 하늘다리 가는 길, 콩돌, 야생화, 유채꽃무리, 하얀 백사장, 관호마을 돌담, 우실, 각시원추리, 쭉막걸리, 견정, 걷는 길, 산이سرائ지, 각시붓꽃 등이다. 이러한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현재 주민의 섬살이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텔링 간판을 설치하고, 관매 탐방로를 정비하고 있다. 해변카페, 정자를 활용한 무인카페,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한 섬마을 식당을 운영하고 전통 바람막이 돌담인 우실을 복원할 계획이다.

‘노뚝돌’ 반월·박지도. 반월·박지도의 핵심 키워드는 천사의 다리, 갯벌, 낙지, 갯골, 노뚝돌, 당숲, 숲의 정령, 시간이 멈추다. 노뚝돌, 슬픈 사랑이야기, 암자터, 해안 둘레길, 고즈넉함, 깊은 산속 옹달샘, 반월양과 박지군, 호젓함, 꽃이 있는 마을, 원안의 논, 10샘 등이다. 이러한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사랑을 테마로 한 탐방로, 자전거를 타고 달려보는 해안 둘레길 등을 조성하고,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숙박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햇섬’ 생일도. 생일도는 면소재지 규모의 큰 섬으로 미역과 다시마, 멸치, 전복 등 먹거리와 갯돌해변, 모래해변 등의 자연자원이 풍부하다. ‘다시 태어나는 섬’이라는 컨셉과 차별화된 전복 생일 밥상, 마방할머니 전설, 잣밤나무를 이용한 생일목 행사, 서성향 생일 조형물 등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준비 중이다.

‘꼬막섬’ 장도. 장도는 랍사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벌교갯벌에



위치하여 꼬막과 게, 짬뽕어, 낚지 등 갯벌 자원이 풍부하다. 갯벌 체험, 식도락 여행, 폐교를 활용한 작은도서관, 섬마을 분교 야영장, 낚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며, 갯벌을 보존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기계 작업을 마다하고 손으로 꼬막을 채취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꽃섬’ 손죽도. 손죽도는 집집마다 공터마다 작은 정원들이 살아있어 마을의 풍경이 아름답고, 힐링과 치유의 ‘건강 생태마을’이 컨셉이다. 댕머리공원, 북카페, 스토리문패, 가구별 꽃정원, 이대원 동화책 발간, 손죽분교 캠핑장, 마을안길 ‘걷는 미술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순례길’ 기점소악도. 기점소악도는 대기점, 소악도, 대악도, 병풍도를 잇는 5개의 노둑길로 섬과 섬이 연결된 지형이 다소 특이한 섬이다. 무인카페 겸 쉼터, 유채·수국 경관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며, ‘12사도 교회가 있는 순례길’을 컨셉으로 자연 그대로의 오솔길을 만들어 방문객들에게 최고의 힐링 코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추진부서 ○ 해양항만과장 한동희, 섬개발팀장 신운용, 담당자 손영근

### 1-3. 해양관광시대를 선도하는 「가고 싶은 섬」

사업 첫해인 2015년 선정한 「가고 싶은 섬」 낭도(여수)·연홍도(고흥)·가우도(강진)·소안도(완도)·관매도(진도)·반월박지도(신안) 등 6개 섬이 해양관광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통해 섬의 매력이 점차 선명해지면서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4년에 269,703명에 불과했던 관광객이 2017년에 1,066,534명을 기록, 무려 295%나 급증했다.

관광객이 예상보다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수익사업을 위한 섬 주민

들의 행보도 빨라졌다. 애초 사업 완료 시점인 2019년에 맞추어 계획했던 펜션, 식당, 체험 등 관광상품 판매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함이다. 일부는 이미 운영을 시작했다.

도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으로 섬 관광이 활성화되고 주민 소득이 올라가면, 점차 섬에 대한 인식이 '머물고 싶은 섬', '살고 싶은 섬'으로 바뀌리라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아직 「가고 싶은 섬」에 선정되지 않은 도내 섬 주민들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2018년 5월 현재까지 선정을 계획한 24곳 중 12곳을 확정했고 이제 남은 곳은 12곳. 2015년 선정된 「가고 싶은 섬」 6곳의 성공적 행보에 힘입어 「가고 싶은 섬」에 선정되기 위해 섬을 아름답게 가꾸는 긍정적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도는 섬을 아름답게 가꾸려는 이러한 경쟁이 남도의 섬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나아가 우리 도를 해양관광시대의 중심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2015년 선정된 6개 섬 방문객 현황 】

(단위 : 천명, %)

구분	2014	2015	2016	2017
방문객	269	570	851	1,066
증 감	-	111	49	25

추진부서 ● 해양항만과장 한동희, 섬개발팀장 신운용, 담당자 손영곤

### 1-4. 「섬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미래의 잠재 성장 동력인 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기념하기 위해 '섬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을 추진했던

전남도의 노력이 열매를 맺었다.

‘섬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은 2016년 8월 23일 목포MBC 창사 48주년 특집 토론회 ‘섬의 날을 제정하자’에서 처음으로 공론화됐다.

이후, 2016년 9월에 당시 전남도지사였던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정부에 건의했고, 행정자치부는 전남도의 건의를 수용해 ‘섬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을 추진했다.

행정자치부(現 행정안전부)는 국회도서발전연구회와 공동으로 2017년 1월에 대국민 공모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3월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남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렇게 수렴한 여론의 중지를 모아 국회도서발전연구회 소속 박지원 공동대표를 비롯한 19명의 국회의원이 2017년 3월 6일에 ‘섬의 날’을 제정과 관련한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결국, 2018년 2월 2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8월 8일을 ‘섬의 날’로 하는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8월 8일은 기억하기 쉽고 먹거리·불거리가 풍부하여 휴가철 섬 관광 활성화에 적합하다는 이유에서 고른 지지를 받았다. 8은 섬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 $8 = \infty$ )을 상징한다.

추진부서 ● 해양항만과장 한동희, 섬개발팀장 신운용, 담당자 손영근

## 2. 「숲속의 전남」 만들기

### 2-1. 추진배경과 사업내용

전남도는 계획적인 식재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자연경관과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2015년 「숲속의 전남 만들기 10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국비와 지방비 등 5,300억원을 투입, 담론적으로는 자연경관의 매력을 극대화하여 '대한민국 힐링테마파크 숲속의 전남'을 건설하고, 산업적으로는 14조원(2013년 말 기준) 수준인 지금의 산림 가치를 30조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도는 2024년까지 가로수 1,180km, 학교숲(초·중·고, 특수학교)·나눔숲(복지시설 등)·마을숲(숲이 부족한 마을) 등 530개소, 방풍림·도시숲(자투리땅)·기업숲(국·공유지) 등 31,000ha 조성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계획적인 식재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 목적에 따라 '매력 있는 경관숲', '돈이 되는 소득 숲', '숲의 보전과 활용' 등 세 갈래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아름다운 전남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자 자투리땅과 도로·철도역 주변, 학교, 관공서, 섬, 관광지, 도시공원, 가로변, 하천변 등을 '매력 있는 경관숲'으로 가꾸고 있다.

임업인 및 농축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야산, 한계농지, 간척지, 공유지, 기타 숲 관리가 용이한 지역에 견과류, 밀원수, 약재, 건축용·버섯용 목재로 사용하는 나무 등 미래 가치가 우수한 '돈이 되는 소득 숲' 조성을 장려·지원하고 있다.

역사와 전설이 있는 보호수·노목 등 발굴·정비·관리, 자연휴양림·

산림욕장·치유의 숲 확대 조성, 숲을 활용한 치유·체험·힐링 활동 등 '숲의 보전과 활용' 활동을 장려·지원하고 있다.

사업 완료 시점인 2024년에 이르면 산림가치는 2013년말 14조원에서 30조원으로, 임업인 소득은 7천억원에서 1조 5천억원으로, 관광객은 2013년 178만명에서 35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숲속의 전남」 만들기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 ha, 억원)

구 분	사업비	1단계(2015~2018)					2단계 (2019~2024)
		소 계	2015	2016	2017	2018	
계	5,300	2,040	440	498	550	552	3,260
국 비	2,605	1,032	259	253	260	260	1,573
도 비	740	272	30	67	87	88	468
시·군비	1,845	692	140	167	192	193	1,153
민간(자부담)	110	44	11	11	11	11	66

【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요사업 내용 】

구 분		사업명	사 업 내 용	사업량
재원	실행주체			
계		11종/ 31천ha/ 530개소/ 1,180km		
국고 보조	소 계		8종	30,450ha
	시·군	도시숲	자투리땅, 공단, 하천, 쓰레기 매립지	450ha
		섬가꾸기	섬지역 주거지역, 뱃길 가시권	1,000ha
		방풍림	태풍 등 농경지 자연재해 예방조림	4,000ha
		학교숲	초·중·고, 특수학교	170개소
		나농숲	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거주시설	110개소
		가로수	주요 도로변	1,180km
	시·군 산주	경제숲	목재, 바이오매스, 기후변화 대응 탄소흡수원	15,000ha
		생산숲	밀원수, 견과류 등 특용 단기소득 자원조림	10,000ha
자체 사업	주민 단체	마을숲	숲이 부족한 마을, 약취 등 유발 마을	250개소
		관광숲	관광지, 강변·해안 도로, F1경주장 주변 보호수, 공원 등 조성·관리	500ha
민간	기업 단체	기업숲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공유지	50ha

추진부서 ● 산림산업과장 봉진문, 산림경영팀장 문미란, 담당자 이주미

## 2-2. 「숲속의 전남」 만들기, 지속성장 기틀 마련

### 가. 민간협의회 · (사)숲속의 전남 구성·운영

전남도는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을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남을 청량함이 맴도는 수목원처럼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선 도민의 협조가 절실한 까닭이다.

도는 도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와 시·군에 경관·조경·산림·환경·관광 전문가로 구성된 300여명 규모의 민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나무심기에 관한 자문과 홍보,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생활권 주변 숲 확대와 보호활동, 숲 문화운동, 그리고 북한 산림협력사업 개발과 추진을 위해 (사)숲속의전남을 설립(2015. 7. 15.)했다. (사)숲속의전남은 순수 민간단체로서 산림생물다양성 증진과 숲 조성·보존·보전·활용 등의 활동을 선도하고,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 홍보 및 도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 나. 「나무심기 지원조례」 제정과 숲 돌보미 운영

주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나무를 심고 잘 가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 나무심기 지원조례」를 제정(2015. 8. 5.)했다.

이 조례는 전국 지방자치 100대 좋은 조례에 선정되었다.

또한, 숲 돌보미 제도를 운용하여 행정인력과 숲 관리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숲 돌보미는 주변에 조성된 숲을 개인과 단체가 참여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2015년에는 247개 단체, 8,551명에서 2017년에는 478개 단체에 16,680명으로 참여 인원이 큰 폭으로 늘었다.

【 「숲속의 전남」 만들기 숲돌보미 연도별 참여현황 】

연도	기관단체	참여인원(명)
2015	247	8,551
2016	419	13,848
2017	478	16,680

#### 다. 공모를 통한 주민참여 숲 조성

주민이 자발적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새마을회, 부녀자회, 청년회, 노인회, 마을 이장단 등 5인 이상 주민모임과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각 마을에 적합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마을숲을 조성하고 있다.

전형적인 농촌마을인 순천 주암 문성마을과 영광 백수 산하치마을은 마을 공동 소득 창출을 위해 숲을 조성했다. 순천 주암 문성마을은 옷된장, 옷칠액 생산을 목적으로 마을 야산에 옷나무를 심었다. 영광 백수 산하치마을은 벌꿀 생산을 목적으로 아카시아와 헛개나무를 심었다.

한옥민박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영암 군서 모정마을은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아름다운 수양버들숲을 조성했다. 조선시대 뛰어난 문장가인 임구령 선생이 모정저수지를 축조하고 1만주의 수양버들을 심었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인문학 콘텐츠를 확충한 것이다.

## 【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참여숲 연도별 조성현황 】

연도	개소수 (개소)	사업비 (억원)
계	231	96
2015	39	16
2016	85	40
2017	107	40

추진부서 ● 산림산업과장 봉진문, 산림경영팀장 문미란, 담당자 이주미

### 2-3. 「숲속의 전남」 만들기, 매년 목표 초과 달성

「숲속의 전남」 만들기 3년 차인 2017년에 경관숲 452만 그루, 소득숲 705만 그루 등 1,157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목표를 15.7% 초과 달성했다. 2015년에는 0.9%, 2016년 11.2%를 초과 달성한 데 이어, 또다시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2017년에 심은 꽃나무도 2015년 246만 그루와 2016년 700만 그루를 합한 것보다 많은 1,110만 그루를 심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심은 나무는 3,278만 그루, 꽃나무는 2,156만 그루에 이른다.

이렇듯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이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었던 지역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사업 시행 첫째 조성한 숲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면서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했고, 자기 지역·마을도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욕심에 경쟁적으로 사업에 경쟁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숲은 세상을 치유하는 공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앞으로도 아름답고 미래 가치가 있는 경관숲·소득숲 조성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 【「숲속의 전남」 만들기 식재실적】

(단위 : 만 그루)

연도	계획	식재실적	
		나무	꽃
계	3,000	3,278	2,156
2015(1년차)	1,000	1,009	346
2016(2년차)	1,000	1,112	700
2017(3년차)	1,000	1,157	1,110

추진부서 ● 산림산업과장 봉진문, 산림경영팀장 문미란, 담당자 이주미

## 2-4.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평가 및 시상

전남도는 ‘숲 속의 전남’ 만들기와 연계한 시군의 전략과 지역을 상징하는 차별화된 숲 조성 사례 발굴을 위해 추진한 ‘2017년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평가’를 통해 4개 시군과 8개 민간단체를 시상했다.

숲속의 전남 협의회 주관으로 환경·경관·디자인 등 전문가가 참여한 시·군 평가에서 대상에 강진군, 최우수상에 여수시, 완도군·영광군을 우수상에 선정했다.

강진군은 강진만 자전거 도로 3.27km 구간에 구실잣밤나무를 심어 전라도 천년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오는 2020년 문을 여는 지방정원 다산원과 연계한 휴양관광레저자원으로써의 미래비전을 제시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수시는 전라선 폐선부지에 지역 향토기업과 함께 나무를 심어 여가 공간으로 재생하면서 주민 재능기부를 통해 수목 부산을 이용

하여 목간판, 트릭아트, 아트목벽을 설치, 숲의 완성도를 높인 점이 인정받았다.

완도군은 지역 특화수종인 완도호랑가시나무를 활용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하여 탄소중립인증을 받은 점이, 영광군은 정금나무의 노지재배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주조업체와 R&D 협업으로 산업화 기반을 다진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민간단체는 주민참여숲 부분에 순천지봉로 지킴이와 영광 산하치마을을, 숲 돌보미 부문은 목포 삼학도 보전회와 푸른고흥21협의회를, 시군협의회 부문은 보성군·화순군·장흥군 협의회를 선정했다.

도는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평가를 매년 시행함에 따라 특색 있는 지역 경관 수종 조림과 색채미를 반영한 숲 조성 등 숲 경관이 한결 아름답게 연출되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평가를 통해 시·도·민간단체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전남을 더욱 아름답게 가꿀 예정이다.

추진부서 ● 산림산업과장 봉진문, 산림경영팀장 문미란, 담당자 이주미

### 3.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 3-1.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본격 시동

2015년 1월, 이낙연 도지사는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한전 등 4대 전력그룹사와 2020년까지 빛가람 혁신도시에 에너지 선도기업, 연구기업, 기관 등 500개 기업·기관 유치를 골자로 하는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협약(MOU)을 체결하고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을 본격화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는 한전에서 나주 혁신도시 이전을 자사의 성장 계기로 삼고자 기획한 것으로, 2014년 3월에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했다.

2014년 7월에 취임한 이낙연 도지사는 빛가람 에너지밸리를 전남을 넘어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성장거점으로 만들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당시 한전에서 수립하고 있던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계획에 대한 '대응 계획' 수립에 심혈을 기울였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ESS, AMI, LVDC, HVDC, 전기차 충전인프라,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기관·연구소를 유치하여 에너지신산업 생태계를 구축, 미국의 실리콘밸리, 일본의 도요타시, 영국의 사이언스파크와 같은 '글로벌 스마트 에너지허브'로 육성하고 싶은 도(道)의 욕심 때문이었다.

11월에는 전남 투자유치 마스터플랜을 수립·발표하고 국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과 에너지저장장치의 융합을 통한 산업발전전략 모색과 지역사업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ESS 산업육성 국회 포럼'을 개최하는 등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지원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12월에 한전이 나주혁신도시 이전과 함께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기본계획'을 발표하자, 광주광역시·나주시와 함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 2015년 1월 한전과 협약을 체결하고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기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추진부서 ● 에너지산업과장 이근섭, 에너지밸리팀장 배용석, 담당자 남세일

### 3-2. 빛가람 에너지밸리 기업유치 활동

이낙연 도지사는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협약(MOU)을 맺고 빛가람 에너지밸리를 2020년까지 글로벌 스마트 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고자 기업유치 500개, 전문 인력양성 3천명, 일자리창출 3만개 이상을 목표 설정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국비보조프로그램으로 운영한 수도권 이전기업, 신설·증설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2007~2013년 총 492억원) 도비 대체 지원을 비롯한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광주연구개발특구를 빛가람 혁신도시 일원으로 지정 확대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투자유치 환경조성에 도(道) 역량을 집중했다.

또한, 투자대상 기업 방문, 투자유치 설명회와 에너지신산업&에너지밸리 인력채용박람회 개최 등 광주광역시·한전과 공동으로 투자유치 및 홍보 활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이후, 2015년 7월에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17년 11월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장병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빛가람 에너지밸리를 대한민국의 에너지신산업 메카로 육성하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5년 3월 기업유치 1호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2018년 4월 기준 310개 기업과 투자협약 체결, 누적 투자금액 1조 2678억원, 고용창출 효과 8142명을 달성했다. 3년 만에 애초 목표였던 500개의 62%에 달하는 310개 기업유치를 달성한 것은 전남도와 더불어 광주광역시, 나주시, 한전이 하나가 되어 노력한 결과이다.

도는 빛가람 에너지밸리가 ‘글로벌 스마트 에너지 허브’로 도약하는 그날까지 지금의 발걸음을 멈추거나 늦추지 않을 것이다.

【 빛가람 에너지밸리 기업유치 현황 】

- 추진목표(전남, 광주, 한전 공동) : 500개 기업(2015 ~ 2020)
- 공동 투자협약 실적 : 310개사 (전남 239, 광주 69, 검토 2)
  - 합계 : 310개 기업 / 투자액 12,678억원 / 고용 8,142명
  - (2015년) : 77개사, 투자금액 4,262억원 · 고용 3,037명
  - (2016년) : 100개사, 투자금액 3,888억원 · 고용 2,621명
  - (2017년) : 103개사, 투자금액 3,689억원 · 고용 1,972명
  - (2018년 4월) : 30개사, 투자금액 839억원 · 고용 512명

구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3.8.	3.30.	6.29.	9.8.	11.17.	3.7.	6.14.	11.15.	3.27.	9.12.	11.22.	4.26.	
기업 수	310	1	10	21	25	20	28	28	44	23	38	42	30	

- 투자실현 : 186개 기업(60%) 투자실행(전남 159, 광주 27)

추진부서 ● 투자유치담당관 김기홍 신산업유치팀장 최영택, 담당자 최남규

## 4. 남도문예 르네상스

전남은 ‘예향’으로 불릴 만큼 융성한 문화와 예술을 자랑하는 곳임에도 물질을 터부시하는 선비정신에 얽매어 그 위대한 유산을 산업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이에 예향 남도의 우수한 문화예술 유산을 사회적·시대적 재조명함과 동시에 전남 성장동력의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남도문예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도는 ‘남도문예 르네상스 기본구상 구체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전통 문화예술자원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비교우위 자원 12개를 선정, 핵심자원별 발전 방향을 수립했다.

### 【 비교우위 자원(12개) 】

자원명	주요특징
서화	전통회화의 상징 소치, 서예에서 추사 이래 1인자로 불리는 소전의 고향
전통정원	한국대표 전통정원이 다수 분포(소쇄원, 백운동서원, 세연정)
종가문화	선비정신을 토대로 기품을 갖추고 미덕을 행한 종가문화 계승
바둑	한국을 대표하는 국수 3인을 배출(김인, 조훈현, 이세돌)
문학	전통가사문학과 현대문학(이청준, 한승원, 한강 등)의 중심지
다도	우리나라 차 재배 면적의 53%, 차 생산량의 65%
도자	청자(녹청, 분청), 옹기, 도기 등 다양한 도자 제조기술 전승
판소리	한국 판소리를 대표하는 동·서편제의 발상지이자 다수의 명창 배출
음식문화	남도음식축제를 기반으로 한식 세계화의 다양한 콘텐츠 보유
공예	옥, 목, 금속, 죽세, 직물공예 등의 분야에 인간문화재(장인) 다수 보유
전통연희	민속놀이와 의례(강강술래, 씻김굿, 다시래기 등) 공연 유산 풍부
고인돌	화순 고인돌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2000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동안 3개 분야 28개 사업에 2,991억 원을 투입, 위대한 남도문예 유산을 문화·관광산업을 이끄는 킬러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전통정원 복원 및 연계, 종가문화 활성화, 국립바둑박물관 건립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고 성공적 산업화 모델로 발전시키고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남도문예 르네상스 세부 추진 사업 】**

구 분	사 업 명
선도사업 (4)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전통정원 복원 및 연계, 종가문화 활성화, 바둑문화활성화(국립바둑박물관 건립, 바둑대회 개최)
핵심사업 (8)	전남 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 전남 창작센터 건립, 남도문학벨트 조성, 다도문화 대중화 프로그램 시행, 전남 명품공예 창작소 설립·지원, 전남 프리미엄 관광상품 개발, 남도음식명가 지정 및 지도(택리지) 제작, 예술작품 멤버십 렌트 사업
연관사업 (16)	도립미술관 건립, G&J 광주·전남 갤러리 설치,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황해교류역사관 건립, 소재원 등 VR(가상현실) 콘텐츠 개발, 전남 전통창극 축제 개최, 장인·명인 아카데미 운영, 국립한국화진흥원 건립, 국립한국문학관 유치, 수목 작품 해외전시, 가사문학 체험 프로그램, 다도문화 활용 힐링 체험프로그램 운영, 남도문예 르네상스 콘텐츠 관광자원화, 남도문예 르네상스 미디어 홍보, 세종학당을 통한 남도 전통문예 전파 등

**추진부서** ● 문화예술과장 정석호, 남도문예팀장 오수미, 담당자 곽진희

## 4-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 가. 비엔날레 성공개최를 위한 초석

전남도는 한국의 대표 시각예술자원인 수목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지역의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육성하고자 지난 2016년부터 국제수목

비엔날레를 준비하고 있다.

2016년 7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민·관·학 등 모든 도민의 힘을 모아 각고의 노력 끝에 2017년 7월 기획재정부로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명실상부한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17년 7월 (재)전남문화관광재단 내에 비엔날레 사무국이 1국 1부 3팀 15명으로 출범했으며 2017년 11월 총감독을 선임하고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또한 EI 디자인을 개발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2018년에는 수목비엔날레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무국 조직을 1국 2부 6팀 30명으로 확대했다.

2017년 10월에는 사전 붐 조성을 위해 10월 13일부터 1개월 간 목포와 진도에서 「2017 전남국제수목프레비엔날레」를 개최했다.

‘수목의 여명 - 빛은 동방으로부터’라는 주제로 펼쳐진 프레비엔날레에는 11개국 232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6만 7천여명의 관람객이 찾아 2018년에 개최될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의 성공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전시, 체험, 교육, 공연 등 24개 프로그램을 운영, 국제 학술회의를 통해 각국 수목화의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알찬 시간을 가졌다.

목포 평화광장에서는 ‘수목의 뜰’이라는 주제로 200여개의 수목 깃발을 전시해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참여작가의 수목화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 수목아트마켓 등도 수목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성공적으로 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 프로그램 및 참여작가 】

프로그램	장 소	참여작가
본전시	목포문화예술회관	97명(한국 70, 외국 8개국 27)
풍류남도	목포 노적봉 미술관	20명(한국)
10경판화	도청 운선도홀	2명(한국) *중복
디지털을 입다	목포 오거리문화센터	1명(한국, 이이남)
예술로 소통하다	목포 여객선터미널 미술관	59명(한국 50, 일본 9)
수묵으로 만나다	목포 나무숲	10명(한국 6, 외국 4개국 4명)
분단의 역사 전	진도 운림산방	2명(한국 박행보, 북한국적 이건의)
남도화맥전	진도 운림산방	43명(한국)

추진부서 ○ 문화예술과장 정석호, 남도문예팀장 오수미, 담당자 강요상

## 나. 2018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개최

「2018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를 8월 30일 전야제(진도)와 8월 31일 개막식(목포)을 시작으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간 ‘오늘의 수묵 - 어제에 묻고 오늘에 답하다’라는 주제로 목포시와 진도군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비엔날레는 ‘현대 수묵의 재창조와 전통 수묵의 재발견’를 기본 콘셉트로 정하고, 중국, 일본, 대만 등 전 세계 10여개국 주요 작가의 작품 300여점을 전시하며 학술, 체험, 이벤트 등 20여개 이상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진도 남도전통미술관과 금봉미술관에는 해외작가의 작품과 함께 전통 산수화 작품을 전시하고, 진도향토문화회관 내 옥산미술관에는 남도의 실경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사생 작품을 전시한다.

목포 문화예술회관 일원에는 현대적 수묵 작품을 전시하고, 전국

미술대학 및 동호인이 참여하는 깃발 미술제를 평화광장에서 개최한다. 또한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 갤러리에는 남도문예 르네상스와 연계한 작품을,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에는 청년작가 중심의 수목 작품을 전시한다.

수목의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체험·참여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VR(가상현실)을 통한 수목 체험, 머그컵·두방지·부채·족자 등에 참여자들이 직접 작품 제작을 체험하는 ‘나도 수목화가’, 수목작가와 음식점이 연계해 펼치는 ‘수목 앞치마 미술제’, 수목화를 테마로 한 주말 퍼포먼스 공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세계 수목의 미래를 논하기 위해 국내·외 수목작가와 전시기획자, 평론가들이 참여하는 ‘학술회의’와 국내·외 작가들이 유희시설을 활용해 체류하며 창작활동을 펼치는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비엔날레 사전 홍보를 위해 ‘한국수목 해외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시회는 중국 상하이에서 5월 19일부터 6월 16일까지, 홍콩에서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열린다.

도는 선조들이 물려준 국내 최고의 예향으로서 위상을 활용, 남도문예의 중흥을 위해 「2018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준비에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다.

【 주요 프로그램 】

구분	프 로 그 램		장 소
전 시	현대 수목의 재창조	첨단매체를 활용한 실험적·현대적 수목 작품 전시 해외작가와의 교류를 통한 현대수목 변화 가능	목포 유달산권 목포 갯바위권
	전통 수목의 재발견	산수화에 대한 현대적 해석(해외작가 연합) 전남 및 진도 사생을 통한 남도 실경의 재발견	진도 윤림산방권 진도읍권

교육 (3)	교육 (2)	찾아가는 수목화 트럭	도내순회
		수목놀이 교육	목포, 진도 일원
	학술 (1)	국내·외 학술회의 (수목의 활성화 및 세계화 전략)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목포문화예술회관
체험 (2)	첨단 체험	디지털 아트 체험 “Learn and Play!”	목포문화예술회관 진도 윤림산방
	일반 체험	수목화 체험 ‘나도 수목화가’ (머그컵, 부채, 족자 등에 작품 제작)	목포, 진도 일원
이벤트 · 공연 (17)	이벤트 (14)	수목으로 기록한 대한민국	전국일원
		종가의 향기 (전남 대표 종가의 전경을 작품으로 제작·전시)	목포 연안여객선 터미널 갤러리
		앞치마 미술제	목포, 진도 일원
		세상의 좋은 말들!	목포문화예술회관 야외
		깃발 미술제	목포 평화광장
		아트마켓(특화 상품 개발 및 판매)	목포문화예술회관
		수목특화거리	목포원도심
		수목화 봉투 제작, 참여형 홍보배너 제작, 수목 캘리그래피, 문화지도, 수목 연날리기	목포, 진도 일원
		아트월	목포문화예술회관
		목포역 프로젝트	목포역일원
공연 (3)	수목화 퍼포먼스, 해군 군악대, 진도 국악·북춤	목포, 진도 일원	
기 타	교류 행사	국제레지던시	목포, 진도 일원

추진부서 ○ 문화예술과장 정석호, 남도문예팀장 오수미, 담당자 강요상

## 4.2. 종가문화 활성화

### 가. 전남 종가문화 현황 보고서 발간

전남도는 ‘남도문예 르네상스’의 일환으로 전남 종가의 생활사와 전통을 보존하고, 정신문화·예절문화·음식문화 등 종가문화를 문화관광 콘텐츠로 육성·활용하고자 2016년 종가문화 활성화 사업을 기획했다.

도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종가 문화자원에 대해 폭넓고 깊이 있는 조사와 연구, 재조명을 선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전문연구진을 구성하여 2016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도내 30개 종가에 대해 종가문화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2017년 6월, 종가문화 현황조사 보고서 ‘전통과 가통이 계승되는 공간-전남종가’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종가의 역사, 건축, 문헌, 제례, 음식, 생활문화 등 유·무형적 문화자원에 대한 현황과 가치평가, 종가 활성화 방안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현황조사 과정에 새롭게 발굴한 35개 종가에 대해서 2018년 7월까지 추가 현황조사를 할 예정이다.

도는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통문화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전남 종가문화의 우수한 가치를 전 세계인과 공유할 수 있도록 종가문화 활성화 사업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문화예술과장 정석호, 남도문예팀장 오수미, 담당자 곽진희

## 나. 종가문화 전수·선양 학술회의 개최

전남도는 2016년 12월에 이낙연 전라남도 도지사, 윤형식 전남 종가 회장, 종손종부, 유림단체, 문화원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종가의 정신·문화적 가치와 계승방안'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종가문화의 정신·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종가의 시대적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주제발표와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다.

2018년 9월에는 전남 종가문화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남 종가문화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제2회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전문가, 종가회원, 유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남 종가문화의 학술적 가치(역사, 불천위제례, 건축학적 특성)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추진부서 ● 문화예술과장 정석호, 남도문예팀장 오수미, 담당자 곽진희

## 다. 전남 종가문화 활성화 지원

### 1) 전남 종가(종택) 보수·정비 사업

전남도는 2017년부터 종가(종택)의 문화자원 보존·계승을 위해 종가(종택) 보수·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종가 대부분 시설이 낡아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2017년에 2개소를 2018년도에는 4개소를 지원했다.

도는 종가문화로 향후 세계적 문화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종가를 원형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보수·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2) 남도고택 체험프로그램 운영

전남도는 종가의 정신·문화적 가치를 관광콘텐츠화 하기에 앞서서 전남 고택과 주변 명소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에는 3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했으며 2018년에는 도내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 외국인교환 학생 등 참가대상을 다양화하고 횟수도 5회로 늘려 운영한다.

## 【 2017년 추진실적 】

종가(종택)	프로그램 주제	기 간	참가대상
나주 남파고택	나도 셰프 '남도의 맛을 찾아서'	2017. 7. 8.(토) ~ 9.(일)	완도고 20명
구례 운조루	나도 영상 전문가 'FOCUS 운조루'	2017. 7.14.(금) ~ 15.(토)	목포 중앙고 35명
해남 녹우당	나를 바꾸는 방법 '마음가짐'	2017. 7.21.(금) ~ 22.(토)	여수 여천중 27명

## 3) 종가문화 사진전시회 개최

전남도는 종가문화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계승하고 종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2017년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전남도청 윤선도홀과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해남 녹우당 고산윤선도 유물전시관에서 2주간 종가문화 사진전시회를 개최했다.

'온기와 지혜의 삶, 전남 종가'라는 주제로 열린 사진전시회에서는 10개 종택의 아름다운 사계(四季), 건축물, 소장유물 등 40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추진부서 ○ 문화예술과장 정석호, 남도문예팀장 오수미, 담당자 곽진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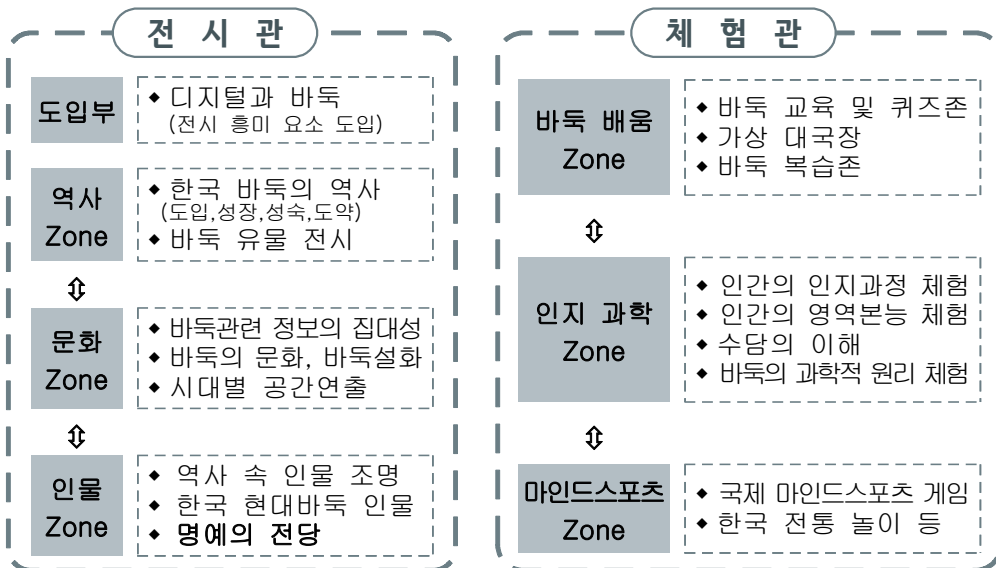
### 4.3. 국립 바둑박물관 건립 추진

전남도는 바둑박물관의 건립 기본방향 및 운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바둑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했다.

바둑박물관은 2016년 3월 이세돌 9단과 알파고와의 바둑대국을 계기로 추진하게 된 것으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법정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수행했다.

용역결과 각종 사례조사와 전문가의 설문을 거친 바둑박물관 구상안의 적정규모는 건축연면적 5,700㎡ 내외로 바둑의 역사·문화·인물을 전시하는 공간과 바둑배움·인지과학·마인드스포츠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구성하고, 2017년 11월 개관한 조훈현국수기념관과 연계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 바둑박물관 전시계획(안) 】



도는 앞으로 바둑을 소재로 한 국립박물관 건립의 국가정책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바둑진흥을 위해 국내외 각종 바둑대회 개최, 바둑관련 학교 및 바둑팀을 육성하는 등 바둑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국기원과 협력하여 유물과 전문인력의 확보, 국립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반영, 바둑진흥법 제정 지원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열, 체육시설팀장 김백중, 담당자 최 환



## 5.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

### 5-1.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 추진

전남도는 2018년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전국 8도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전라도 탄생 천년을 경축하고, 새로운 천년을 향한 힘찬 비상을 꿈꾸며 광주광역시·전라북도와 함께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은 ‘전라도’ 탄생 천년이 되는 해다. ‘전라도’는 전라남도과 전라북도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에 강남도(전북 일원)와 해양도(전남·광주 일원)의 행정구역을 통합하고 전라도(全羅道)라 명명한 것에서 유래했다. ‘전라’는 전주(全州)와 나주(羅州)의 머리글자를 합하여 만든 것이다.

이후 전라도는 천년 동안 동북아 경제·문화 등 국제교류의 중심지였으며 동학농민혁명·의병항쟁·독립운동·518민주화운동 등 민중의 기치를 곧추세운 한반도의 혼불이었다.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은 이러한 찬란한 역사와 자랑스러운 위상을 재조명하고, 광주광역시·전라북도와 상생협력을 통해 희망찬 미래를 함께 열어가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2015년 11월, 호남권 정책협의회에서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을 호남권 협력과제로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후,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전북연구원·광주전남연구원의 학술연구와 전문가의견수렴을 거쳐 기념사업의 비전과 전략과제를 도출했다.

2017년 3월, 나주에서 열린 2017년 상반기 호남권 정책협의회에서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7대 분야 30개 세부사업)을 확정·발표했다.

## 【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 】

분 야	세 부 사 업 명	사업기간	주관 시도
합 계	7개 분야 30개 세부사업		
전라도 이미지 개선	① 전라도 천년 연중 캠페인	'17~'18년	광주
	② 전라도 천년 기념 슬로건 및 엠블럼 제작	'17.7.~'18.1.	전남
	③ 전라도 천년사 편찬	'18~'22년	전북
전라도 천년 문화관광 활성화	① 2018년 전라도 방문의 해 운영	'17~'18년	광주
	② 전라도 방문의 해 스탬프투어, 아트&버스킹	'17~'18년	전남
	③ 전라도 천년 국내외 관광 홍보	'17~'18년	전남
	④ 전라도 천년 기념 청소년 문화교류	'18년	전북
	⑤ 전라도 천년 명품여행상품 운영	'18~'20년	전북
전라도 천년 대표 기념행사	① 전라도 천년맞이 타종식	'18.1.	광주
	② 전라도 천년 가로수길 조성 기념식	'18.4.	전남
	③ 전라도 천년 기념식 및 문화행사	'18.10.	전북
학술 및 문화행사	① 전라도 천년 D-1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	'17.10.	전남
	② 전남도립국악단 D-1년 특별공연	'17.10.	전남
	③ 전라도 미래천년 포럼	'18.2.~10.	전북
	④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공연	'18.7.	광주
	⑤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천년의 꿈'	'18.9.~11.	광주
	⑥ 전북도립미술관, 전라 밀레니엄 展	'18.9.~11.	전북
	⑦ 전북도립국악원, 전라천년 공연	'18.9.~11.	전북
	⑧ 천년 기념 해외 호남 향우 고향방문 행사	'18.10.	광주
	⑨ 전라도 천년 명품 특별전	'18.9.~12.	전남
	⑩ 전라도 천년 국제 관광 컨퍼런스	'18.10.	전남
문화유산 복원	① 광주 희경루 중건	'17~'22년	광주
	②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16~'18년	전북
	③ 나주목 관아 복원 및 나주읍성권 재생	'15~'24년	전남
전라도 천년 랜드마크 조성	① 천년의 빛 미디어 창의파크 조성	'17~'20년	광주
	② 전라도 새천년 공원 조성	'18~'22년	전북
	③ 전라도 천년 정원 조성	'17~'21년	전남
전라도 천년 숲 조성	① 무등산 남도피아 조성	'16~'20년	광주
	②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18~'22년	전북
	③ 전라도 천년 가로수길 조성	'17~'26년	전남

추진부서 ● 정책기획관 주순선, 광역협력팀장 김현주, 담당자 박시원

## 5-2. 전라도 천년 D-1년 기념식 개최

2017년 10월 18일, 전남·광주·전북 3개 시·도는 D-1년을 기념하기 위해 빛가람혁신도시에서 ‘전라도 천년의 발자취, 새로운 천년의 도약’이란 주제로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의 첫번째 공식행사인 ‘전라도 천년 D-1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전남·광주·전북 3개 시·도는 ‘새천년 전라도의 도약을 위한 선언문’을 선포했다.

기념식 후에는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전라도 역사를 재조명한 고석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전라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자’라는 주제로 본토론회가 열렸다.

심원술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본토론회에서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별로 홍성덕 전주대 교수, 최영태 전남대 교수, 유성기 동북아경제연구원장, 염미경 제주대 교수, 송진희 호남대 예술대학장이 발제자로 나서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분야	발제자	주 제
역사	홍성덕	전라도 역사 재정립으로 전라도인의 자긍심을 제고하자
정치	최영태	호남정치의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하자
경제	유성기	전라도의 미래, 4차산업혁명과 아시아경제권에서 답을 찾자
사회	염미경	연대와 협력의 열린 공동체를 만들자
문화	송진희	전라도 천년문화를 담아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자

추진부서 ● 정책기획관 주순선, 광역협력팀장 김현주, 담당자 박시원

### 5-3. 전라도 천년 슬로건 및 엠블럼 제작

전남·광주·전북 3개 시·도는 ‘전라도 정도 천년의 의미’와 ‘새 천년에 대한 비전’을 담은 상징체계를 구축하여 대내·외에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홍보하기 위해 「전라도 천년 슬로건 및 엠블럼」을 제작, 2018년 1월 1일 ‘전라도 천년맞이 타종식’에서 공식 선포했다.

「전라도 천년 슬로건 및 엠블럼」 제작에는 총 사업비 90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전남·광주·전북 3개 시·도에서 공동 분담했다.

3개 시·도는 천년 슬로건으로 ‘전라도, 천년을 품다 새천년을 날다’로 정하고, ‘3개 시·도가 하나가 되어 협력과 동반성장을 통해 미래로 비상하자’는 의미를 엠블럼으로 형상화했다.

3개 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슬로건 공모(2016명 참여)와 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종 슬로건과 엠블럼을 선정했다.

또한, 개발 전 단계에 거쳐 디자인, 역사, 인문, 언어 등 관련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자문을 통해 우수한 결과물을 도출해 냈다.

도를 포함한 3개 시·도에서는 전라도의 찬란한 역사와 자랑스러운 위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행정문서 및 각종 홍보자료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 전라도 천년기념 엠블럼 및 슬로건 】



추진부서 ● 문화산업디자인과장 김태식, 공공디자인팀장 조경숙, 담당자 박유나

## 5-4. 2018년 「전라도 방문의 해」 운영

‘2018 전라도 방문의 해’는 ‘기념일에 이벤트를 개최하여 자사의 상품을 홍보·판매하는 데이마케팅(Day Marketing)’과 같이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하는 이색적인 이벤트를 개최하여 관광객을 유인하려는 전남·광주·전북 3개 시·도 공동 프로젝트다.

전남·광주·전북 3개 시·도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진행하는 ‘2018 전라도 방문의 해’ 프로젝트에 총 23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아트&버스킹, 모바일 스탬프투어, 명품여행상품 등 총 9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11월, ‘2018 전라도 방문의 해 선포식’(서울 더플라자호텔)을 시작으로 부산·대구·인천·대전·강원 등 대도시를 찾아다니며 ‘2018 전라도 방문의 해’를 홍보했던 전남·광주·전북 3개 시·도는 2018년 1월 1일 전라도 천년맞이 타종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손님맞이에 나섰다.

Welcome 버스킹공연팀을 비롯한 여러 공연팀은 수서역, 평창동계 올림픽, 2018년내나라박람회, 고속도로휴게소, 전국 축제장 등을 돌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총력 홍보전에 돌입했고 TV·라디오 방송광고와 홈페이지, SNS 등을 총동원하여 온라인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18년 4월부터 ‘전라도 관광 100선 명소’를 방문, 스마트 폰에 ‘전라도방문의 해 앱(어플)’을 설치하여 스탬프 인증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단계별 선물을 제공하는 스탬프투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여행후기콘테스트’도 진행하고 있다.

6월에는 국내·외 청소년을 초대해 전라도 역사·문화 유적지 탐험단을 운영했다.

10월에는 호남권 국제관광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국내·외 석학들과 함께 과거 천년을 시간을 되돌아보고 미래 천년을 대비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추진부서 ● 관광과장 유영관, 전라도방문의해TF팀장 강창구, 담당자 고현영

## 5-5. 전라도 천년 연중 캠페인

전남도는 전라도 천년에 대한 시·도민들의 관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전라도의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함께 2017년 10월부터 TV 방송을 통해 전라도 천년 연중 캠페인을 방영하고 있다.

KBC광주방송, 광주MBC, 목포KBS 3개 방송사가 전라도 천년의 역사, 문화, 인물, 사상 등의 테마로 각각 제작한 TV 캠페인과 다큐를 3개 지역 지상파 방송은 물론 전국 방송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전라도 천년 연중 캠페인은 2018년 6월까지 TV 및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방송될 예정으로 전라도의 긍정적 이미지를 널리 알림으로써 지역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추진부서 ● 정책기획관 주순선, 광역협력팀장 김현주, 담당자 박시원

## 5-6. 전라도 천년 국내외 관광 홍보

전남도는 정도 천년을 기념한 '2018 전라도 방문의 해' 운영과 더불어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TV, 라디오 광고, 방문의 해 홈페이지 운영, SNS 등 온라인 홍보 활동과 함께 오프라인에서도 버스터미널, 고속철도역, 고속도로휴게소, 지역 대표축제, 각종 박람회 등 인구 밀집지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홍보를 연중 진행한다.

1월에는 (주)SR, 2월에는 (주)코레일, 관광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평창동계올림픽, 내나라여행박람회 등에 참여해 전라도를 홍보했다. 7월에는 한국도로공사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전라도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대표 관광지 100곳을 선정, 모바일스탬프투어, 명품여행상품, 버스킹 공연 등 '전라도 방문의 해'사업과 연계·활용 중이다.

특히 지금까지 봐왔던 보통의 지도와는 달리 100개 장소별 특징을 수채화로 표현한 지도형 리플릿을 제작·배포함으로써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전북은 전주한옥마을과 군산시간여행마을, 고창고인돌박물관 등 37개소, 광주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대인동 예술의 거리 등 15개소, 전남은 강진가우도, 고흥연흥도, 장흥우드랜드, 영광백수해안도로 등 48개소이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전라도 관광100선, 아트&버스킹 등 천년 브랜드를 활용한 관광콘텐츠 발굴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추진부서** ● 관광과장 유영관, 전라도방문의해TF팀장 강창구, 담당자 고현영

## 5-7. 나주목 관아 복원 및 나주읍성권 재생

나주는 전라도의 역사적 전통성과 대표성을 지닌 전남 문화의 本郷으로 영산강 주변으로는 세계 최고의 밀집도를 보이는 대형옹관고분과 옹관가마터 등의 문화재를 비롯하여 인근 영암, 화순, 함평 등지의 개성있는 문화 자원이 분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영산강 문화가 찬란히 발전하였던 지역특성과 부합하여 나주는 전라남도의 성장 동력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전국 제일을 자랑하는 나주목 객사 금성관을 비롯하여 나주향교, 목사내아, 나주관아 정문 정수루, 향청, 주사청, 나주읍성 등 도심에 밀집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이 일대를 복원 재생하는 사업을 위해 문화재청, 전라남도, 나주시가 함께 정도 천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8년까지 나주읍성 및 금성관 동측 복원, 나주목관아지 토지매입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2024년까지 총 615여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추진부서 ● 문화예술과장 정석호, 문화재팀장 권광일, 담당자 강효오



## 5-8. 전라도 천년 가로수길 조성

전남도는 지역특색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2016년부터 ‘전라도 천년 가로수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도 천년 가로수길’ 사업은 2026년까지 10년간 430억원을 투입해 전남 16개 시군 522km에 가로수를 심거나 보완하고 소공원, 꽃길, 마을숲, 데크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됐다.

2016년까지 서남해안 해안도로에 대한 대상지 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16년 시범사업으로 영광, 강진에 24억원을 투입해 해안도로를 따라 17.4km의 가로수길을 조성했고, 2017년에는 여수, 장흥, 신안 등에 20km의 가로수길을 조성했다.

2018년 4월에는 광주시, 전북도와 함께 장흥 정남진전망대에서 ‘전라도 천년 가로수길 조성 기념식’을 개최했다.

도는 2018년까지 98억원을 투입해 16개 시군에 92.4km의 가로수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강진군 천년 가로수길 조성 현황】



【전라도 천년 가로수길 조성 기념식수】

추진부서 ● 산림산업과장 봉진문, 산림경영팀장 문미란, 담당자 김세근

## 6. 온정을 더하는 서민시책 추진

### 6-1. 전남형 서민시책 발굴·시행

2016년 시무식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발굴·시행하라는 이낙연 지사의 당부에 따라 전남도는 '전남형 서민시책'을 역점적으로 발굴·추진했다. 도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온정있는 도민복지를 실현하려는 취지였다.

2월과 3월에 2차례의 발굴보고회를 개최하고, 4월에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26개 '서민시책'을 확정, 본격적으로 '전남형 서민시책'을 추진했다.

정책 디자인에 노인·임산부·소상공인 등 정책 수혜자를 참여시켜 철저히 수혜자 중심으로 정책을 디자인하고, 정책 수혜자가 적기에 필요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책별 수혜계층에 대한 맞춤형 홍보 서비스를 제공, 전남형 서민시책은 도민의 큰 반향 속에 전국 지자체의 롤모델로 급부상했다.

그 결과 6월에는 정부로부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행정자치부 주관 「지자체 정부3.0 국민디자인 특화과제 심사」에서 '전남형 서민시책'이 최종 선정되었고, 특별교부세 5천만원과 운영비를 지원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추진부서 ● 정책기획관 주순선, 기획팀장 조석훈, 담당자 나종민

## 6-2. 전남형 서민시책 지속적인 발굴·확대

사회안전망의 빈틈을 메우고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서민시책을 발굴해 2017년에 5개 분야 55개 사업으로, 2018년에는 5개 분야 70개 사업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2018년도에는 복지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2017년 사업에 대한 반성을 통해 9개 사업을 폐지하고, ‘청년·소상공인’ 분야 4개 사업, ‘아동·청소년’ 분야 2개 사업, ‘농·어업인’ 분야 2개 사업, ‘노인·장애인’ 분야 8개 사업, ‘저소득·소외계층’ 분야 8개 사업 등 더욱 세분화한 핀포인트 맞춤형 24개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그동안 서민시책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은 도움과 희망을 주었다.

서민시책의 대표 사업 중 하나인 ‘100원 택시’는 2018년부터 정부 교통복지정책에 반영됐고,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고독사 지킴이단’은 적극 행정 우수사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서울·경기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순천과 무안에 문을 연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채무컨설팅 등 종합서민금융서비스를 지원해 도민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또한 2017년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시장상인·기초생활수급자·주부 등 생계형 채무자 1,233명의 빚 191억원을 소각하는 등 빚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회생발판을 마련해 줬다.

개천에서 용나게 하는 사업인 ‘꿈 사다리 공부방’과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도 아동·청소년 학력보강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변화에 발맞춘 서민시책 발굴과 정책수혜자에 대한 맞춤형 홍보 서비스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점증적으로 도민 개개인에 대한 사회적 공공 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 2018년 서민시책 목록 】

지원분야	시 책 명	비고
청년· 소상공인	① 청년 사회적기업가 지원	
	② 중소기업 채용 면접지원서비스 도입	
	③ 채무자대리인 및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지원	
	④ 전라남도 「금융상담복지센터」 운영	
	⑤ 소상공인 일수대출 금리 인하	
	⑥ 전라남도 생활임금제 시행	
	⑦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개설·운영	신규
	⑧ 산업단지 통근 근로자 교통편익 증진	신규
	⑨ 전남형 4050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	신규
	⑩ 청년사업자 저금리 금융 지원	신규
아동·청소년	⑪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⑫ 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	
	⑬ 영재 키움사업 시행	
	⑭ 릴레이 드림콘서트 개최	
	⑮ 통일새싹 재능개발 지원	
	⑯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지원	
	⑱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⑲ 위기가정 대학생 긴급 장학금 지원	
	⑳ 안전문화운동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신규
	㉑ 아동보호전문기관 분소 설치	신규

농·어업인	22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23	농촌인력지원센터 개설·운영	
	24	농업인 안전보험료 확대 지원	
	25	영세소농 차 재배농가 상품화기술 및 수출지원	
	26	하천 횡단교량 모퉁이 개선	
	27	교통 오지마을 '100원 택시' 확대 운영	
	28	농업분야 사회적기업 기술컨설팅 지원	
	29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확대 운영	
	30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31	영세농가 소형 하우스 설치 지원 확대	
	32	수산물 소포장재 개발 및 구입비 지원	
	33	염전 근로자 쉼터 설치 운영	
	34	갯벌 생물자원 방류 확대	
	35	작은 섬 큰 기쁨 사업 추진	
	36	친환경농가 저비용 벼 종자소독기술 지원	신규
	37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신규
	38	환경분쟁조정 이동민원실 운영	
	노인·장애인	39	노인 일자리 및 재능기부사업 운영
40		경로 공동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지원	
41		고령·만성질환자 「전담 구급대」 시범 운영	
42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 운영	
43		관광약자 여행정보 제공 프로그램 도입	신규
44		문화관광해설사 돌봄여행 지원	신규
45		보차혼용도로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 조성	신규
46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 운영	신규
47		장애인 수화교실 운영	신규

	48 '여성장애인 세상밖으로' 운영	신규
	49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지원	신규
	50 노인걸행 전수검진 실시	신규
저소득· 소외계층	51 사회복지시설 옥내 노후 급수관 교체	
	52 주거환경(행복동지사업) 개선	
	53 취약계층 주택 안전시설 지원 확대	
	54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액 인상	
	55 「찾아가는 예술캠프」 운영	
	56 흥을 전하는 공연봉사단 운영	
	57 자활생산품 온라인 쇼핑몰 입점·판매 지원	
	58 소규모 복지시설 건설장비 지원	
	59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 확대	
	60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운영	
	61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비용 지원	
	62 지하수 사용 사회복지시설 무료 수질검사	
	63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전문일터만들기	신규
	64 취약계층 에너지도우미 운영	신규
	65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신규
	66 난임여성 한방치료 지원	신규
	67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	신규
	68 지방하천 「환경지킴이」 운영	신규
	69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신규
	70 공동주택 경비실 등 휴게공간 설치	신규

추진부서 ● 정책기획관 주순선, 기획팀장 조석훈, 담당자 나종민

## 7. 청년발전 정책 추진

지속적인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화로 전남을 비롯한 많은 지자체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난제에 직면했다.

이에 전남도는 민선6기 도정목표를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으로 정하고, 지역의 경제적인 ‘활기’, 문화예술의 ‘매력’,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정’을 회복해서 청년이 살기 좋고,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의 역량을 집중했다.

### 가. 청년정책 추진체계 구축

민선6기 출범 직후 도내 각지의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정책협의체인 ‘청년의 목소리’를 발족해 청년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서울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해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청년활동가·전문가·공무원이 참여하는 ‘청년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청년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

2016년에는 청년의 건전한 발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4대 분야(일자리, 인력양성, 문화, 복지) 70개 세부사업(5년간 총사업비 7,412억원)을 골자로 한 「제1차 청년발전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함으로써 청년친화형 도정의 종합설계도를 완성했다.

### 나. 「청년의 목소리」 운영

도 청년정책협의체인 「청년의 목소리」는 삶의 현장에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과 해결대안을 끊임없이 발굴·제시함으로써 전남의 청년정책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도에서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개설, 청년센터 설립, 청년정책박람회 개최 등 「청년의 목소리」의 제안사항을 정책으로 구현함으로써 청년이 주도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입안체계를 확립했다.

2017년 6월에는 기존 96명의 「청년의 목소리」를 199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각 시·군 청년단체의 참여를 늘림으로써, 명실상부한 청년 네트워크의 구심점이자 지역 청년리더 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 다. 다양한 청년지원시책 추진

2016년 6월에는 도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청년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여 청년정책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전남의 청년정책이 비약적으로 확대됐다.

「제1차 청년발전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청년의 목소리’와 도내 20여개 부서가 협력해 만든 청년정책을 망라하여 일자리·창업, 교육, 문화, 복지 등 분야별 촘촘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과 도가 1:1로 공동적립하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은 2017년 첫째 가입자 1,000명을 시작으로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어, 매년 500명씩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2017년 개최한 「제1회 전라남도 청년정책박람회」는 ‘청년’을 단일 주제로 한 전국 최초의 박람회로써, 전국 지자체의 청년정책을 공유·확산하고 청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마중물로 평가받았다.

또한, 개도 이래 처음으로 「청년 종합 실태조사(2017.11.~2018.4.)」를 실시해 청년의 현실과 정책수요를 체계적·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확대하고 있다.

추진부서 ● 청년정책담당관 정상동, 청년정책팀장 윤재광, 담당자 주우경, 최재규